

④ 해외로 빠져나가는 토종 박사들

# 국적 넘어 실력으로 승부한다

글 | 이원진 \_ 중앙SUNDAY 기자 jealivre@joongang.co.kr

**미**국의 MIT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름부터 MIT의 효과를 노리는 대학들이 많다. 유럽에서는 27개국이 참가해 '유럽 공과대학(EIT)'을 내년 봄에 설립한다. 유럽 전역에 있는 기존의 대학·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지식공동체'다. 인도에는 인도공과대학(IIT)의 캠퍼스가 전국 7곳에 분포돼 선의의 경쟁을 하며 발전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도 11월 26일 7개 주요 국공립대와 사립대인 주오(中央)대 등 8개 대학이 2010년 '슈퍼 제휴 대학원'을 도쿄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노력은 지난 10년간 국제 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학교에 인재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두뇌 유치'에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 국경 없는 '두뇌 유치'···토종박사 83명 외국 대학 진출

외환위기 이후, 정확히 2000년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해외 명문대 강단에 선 국내 토종 박사들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간판(해외 학위)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렸지만 오히려 그 곳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앙SUNDAY'가 토종 박사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7개대 박사 83명이 외국 대

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에 포항공대 박사 14명, 전남대·충남대·충북대·아주대 박사 각 1명이 외국 대학에서 활동 중이었다. 전공별로는 이공계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학계(18명)가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서울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 대학에 재직 중인 서울대 박사 출신 교수는 모두 46명이다. 그 중 22명이 2000년 이후 학위를 취득한 젊은층이다. 대부분은 미국(21명)·캐나다(8명) 등지의 명문대에서 활동 중이다. 1978년부터 박사를 배출해온 KAIST에서도 젊은 연구자의 해외 진출이 두드러진다. KAIST에 따르면 외국 대학에 재직 중인 박사는 모두 19명(이공계 14명)인데 이공계 박사 14명 전원은 2003~2007년 해외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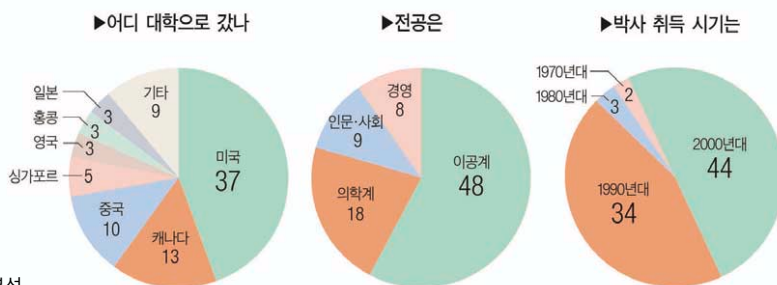
이외에 포항공대 박사 14명, 전남대·충남대·충북대·아주대 박사 각 1명이 외국 대학에서 활동 중이었다. KAIST 박사 출신인 김일민·일용(37) 쌍둥이 형제는 캐나다의 명문대인 퀸즈대에서 나란히 교수로 일하고 있다. 두 교수는 KAIST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 교수가 됐다. 형 일민 씨가 2003년 먼저 임용된 뒤 이듬해에 동생도 캐나다로 건너갔다. 형이 "퀸즈대의 연구 여건이 매우 좋다"며 동생에게 권했다고 한다. 형제는 박사를 딸 때까지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토종'이다. 형은 차세대 이동통신, 동생은 기체공학 분야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내면서 순수 국내 박사이면서도 외국 명문대에 갈 수 있었다.

지방대인 전남대 출신의 이수경 교수(32)는 2001년 전남대에

해외로 간 토종 박사 83명 분석해 보니

(단위 : 명)



※ 7개 대학 자료 취합 분석

서 박사 학위를 딴 뒤 미국의 생명공학연구소인 솔크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했다. 이 때 6개월마다 7편 이상의 논문을 내왔고, 일부는 세계적 과학잡지인 사이언스·셀·뉴런지에 실렸다. 2004년 미국 MIT·스탠퍼드·듀크대 등 5개 대학에서 교수 직 제의를 받았다. 그 중 정착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베일러 의대를 선택했다. 이 교수는 2006년 '퓨 스칼라'를 받고 올해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0만 달러를 받으면서 파격적인 조건 속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정철호(28·음향기술) 덴마크공대 교수는 드물게 20대에 해외로 나갔다. 올 8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박사후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덴마크로 가면서 20대 교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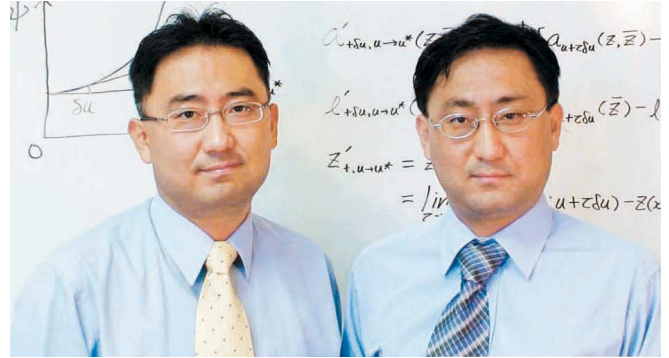
진출국도 다양해지고 있다. 종전에는 미국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캐나다·호주·덴마크·멕시코와 중국·싱가포르에도 많이 나간다. KAIST 이광형 교무처장은 "우수한 국내 박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국대도 늘고 있다"고 했다.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곳은 캐나다 토론토대(7명)였다. 아시아권 대학 중에는 싱가포르국립대에 4명이 진출했다.

토종 박사들의 외국행에는 정보기술(IT) 강국답게 인터넷의 힘이 바탕이 된다. 평소 자신의 이력·수상경력을 해외 유명대에 올려 상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력이다. 교육부가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과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2만 2천750편으로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2005년 12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특히 2005년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과학잡지인 네이처·사이언스·셀에 발표한 논문은 1994~97년 7편에서 1998~2001년 41편, 2002~2005년 67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교육의 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한 것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어 수업이 일반화됐고 학회 참석, 자료 교환, 교환 연구 등의 해외 교류가 급증했다.

#### 우리도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해 고급두뇌 확보해야

하지만 이들이 애초부터 해외로만 눈을 돌렸던 것은 아니다. 이공계에 대한 박한 처우, 학벌주의가 토종 박사들을 외국으로 내몰 경향도 있다. 국내에서 이공계 박사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다. 상위권 대학은 교수 자리가 너무 적고 외국 박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명함을 내밀기도 어렵다. 뿌리 깊은 연줄도 가로막는다. 외국 대학은 실력만 있으면 국적이거나 출신 학교를 따지지 않는다. 충남대 약



김일민(왼쪽)·일용 교수

대에서 석·박사를 마친 유영제(36) 씨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 47편을 발표해 세계인명사전 '마퀴스 후즈후'에 등재되고 미국 국방부에서 우수연구자상을 받았다. 그런데도 출신 학교의 벽을 넘지 못해 국내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미국으로 눈을 돌려 2006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생화학교수 교수로 임용됐다.

외국 대학에 임용되니까 그제야 국내 대학들이 스카우트를 제의하기도 한다. 올해 뉴욕대에서 싱가포르 국립대로 스카우트된 장영태 교수는 2000년 뉴욕대에 임용될 때 국내 대학 두 군데에도 지원했으나 임용되지 않았다. 뉴욕대 교수가 되니까 국내 명문대들의 스카우트 제의가 잇따랐다.

이런 추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우선적이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글로벌 인재의 이동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우리의 인재를 끌어 모으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KIST(지금의 KAIST)에서 박사들 데려오듯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65년 출범한 KIST는 대통령의 연봉을 능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설립 2년 만에 핵심 과학자 35명을 유치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류지성 수석연구원도 "고급 두뇌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2004년 국내총생산의 0.5%)를 1% 수준으로 늘려 세계적 수준의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최고의 교수 한 명은 고급 두뇌를 모으는 집적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시각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사 배출을 줄여 질 관리를 하는 한편 국내 박사를 국내 대학이 적극적으로 뽑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박사를 고려대가 뽑고, 연세대 박사를 서울대가 뽑는 식으로 교차해 흡수하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좀 더 많은 실력 있는 토종박사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㉔



글쓴이는 2004년에 중앙일보 입사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